



정진항

((주)두산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 부회장,  
원료구매위원장)

## 사료 관련 정책제도 개선

### 1. 고곡가 시대

톤당 옥수수 가격 300불.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1년 6개월 전에 150불이었던 옥수수 가격이 200불도 잠깐, 최근에는 300불에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40년 간 이러한 사례는 없었다.

가히 가격 폭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973~74년 세계적인 흉작에 의한 사료곡물 공급의 급감에 의한 옥수수 가격의 폭동이 있었으나, 지금의 고곡가 상황은 보다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농무성의 옥수수가격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과거 100년 동안 옥수수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이 2배가 될 때까지는 평균 30~40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걸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뒤따르는 옥수수의 단위 면적당 생산성 향상에 의하여 가격의 지속적 폭동으로 이어지는 않았다.

우리는 최근 뉴스를 통하여 밀, 설탕 등 식량과 관련된 원료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듣는다.

옥수수는 배합사료의 주원료이다. 일반적으로 주원료는 상승하더라도 기타 원료는 안정적이고, 또는 기타 원료는 상승하더라도 옥수수는 안정적인 것이 예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든 원료가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 발전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엄청난 자원의 흡수, 자원 부족을 예상한 투기자본의 집중, 환경 변화에 따른 가뭄 등으로 세계적인 곡물 생산량 감소 및 세계적인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진단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듯하나, 실제로는 ‘자원 부족 예상’과 그에 따른 ‘자원 전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료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가 수입하는 나라의 기후 변동 또는 항만 노조의 파업 등에 의하여 원료의 일시적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최근의 상황은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의 수급불안이라고 볼 수가 없고 ‘자원 부족 예상’과 그에 따른 ‘자원 전쟁 인식’ 바탕 위에 보다 지속적이고 보

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사료 관련 대책

고곡가 시대의 사료 관련 대책. 옥수수 가격 300불이지만 사료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여기서 잠깐 한국사료협회에서 GS&J 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에 의뢰하여 조사한 ‘일본의 사료원료 확보 시스템과 수급안정제도(2007년 12월)’를 참고하여 일본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 1) 일본의 사료원료 확보 시스템

우리나라와 같이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은 국내 사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던 1960대초~70년대 중반에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사료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일본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 농장을 개설하고 해외 사료자원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생산성이 낮아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료곡물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수입 사료곡물의 안정적 공급 대책으로 전농(全農)과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해외 사료자원 개발에서 해외 사료곡물 물류시설 투자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의 연간 옥수수 수입량은 700만 톤이었고 이 중 80%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함에 따라 미국 내 곡물 물류시스템에 대한 검

토를 토대로, 미국 내 저장, 수출 시설에 투자하였고, 뿐만 아니라 ‘미국 곡물 농가에서 일본 축산농가’까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개념하에 미국 내륙 곡물 생산지대에 강력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 곡물회사를 인수하는 등 일부이지만 자체적인 곡물 조달경로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사료관련 업체들은 수입 사료곡물 공급시스템에 직접 투자 또는 참여를 통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사료원료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 2) 사료곡물 가격완충 및 공급안정 장치

상기의 ‘일본의 사료원료 확보 시스템’이 사료관련 업체들의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라면, ‘사료곡물 가격완충 및 공급안정 장치’는 농가, 농협, 사료업체 및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사료곡물 가격완충 및 공급안정 장치’는 ‘기금제도’와 ‘비축제도’가 있다.

기금제도에는 통상(通常)보전제도와 이상(異常)보전제도가 있고, 비축제도에는 사료곡물 비축사업이 있다.

기금제도는 곡물 수출국의 가뭄, 항만파업 및 해상운임 상승 등에 의한 곡물 가격의 폭등 시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꾀하고 축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축제도 역시 자연재해 및 운송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공급부족을 대비하여 비축 사이로를 건설하고 사료곡물 수요량의 1개월분



## 특집 I • 고곡가 극복 전략은 있는가?

을 비축함으로써, 사료회사의 의무 비축량 1개월분과 함께 총 2개월분의 사료곡물을 비축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통상(通常)보전제도는 농가, 농협 및 사료회사의 자주적인 적립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상(異常)보전제도와 비축제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사)배합사료 공급 안정기구가 주관하고 있다.

일본의 사료원료 확보 시스템과 수급 안정제도를 보면, 농가, 농협, 사료업계 및 정부가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무언의 동의가 이루어진 듯 보인다. 제도적인 측면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료 원료의 안정적 확보 시스템'을 위하여 일본의 종합상사들도 미국 곡물 수출 물류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로서는 부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전반적 대책을 요약하면, 식량 개념으로서 사료 원료공급이 중단되는 돌발사태 발생 시 대책과 급격한 가격상승 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배합사료 가격 안정제도도 일시적 급등 시에 대비한 충격완화는 가능하나 지속적인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3. 축산, 식량으로서 그 중요성 인식과 대책

#### 1) 사료관련 대책

‘사료원료 공급의 돌발 중단 사태를 방지

하거나 또는 일시적 가격 폭등 충격을 완화하는 대책’은 우리나라 축산업과 축산 농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일본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사료 관련 대책이 지속적인 고곡가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고곡가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고곡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축산농가를 살리고 우리나라 축산업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있는 전략이어야 하지 않을까?

#### 2) 축산의 중요성과 그 인식

우리나라의 축산물 생산액이 11조 6천억 원(2006년 기준)에 이르고, 전체 농업생산액의 33.1%를 차지하고 미국 생산액 8조 4천억보다도 훨씬 많으며 연간 1인당 축산물 소비량도 쌀 소비량(78.8kg)과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보다 축산물 자급율이 훨씬 낮은 일본의 경우에도 축산물 생산액이 전체 농업생산액의 30.1%(2005년 기준)로서 쌀과 채소를 제치고 1위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축산은 향후에도 한참 동안 우리나라 농업과 식량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식량산업으로서 축산의 중요성을 반드시 인식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FTA 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의 영향이 있겠으나 일부에서는 어차피 사료원

료를 수입하는 것이나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는 자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들이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을 생각할 때 사료원료 수입에 의하여 축산물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유럽의 축산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가, 사료회사 및 정부가 함께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 4. 맺는 말

우리나라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향상은 축산농가 생산성에 초점이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논의를 위하여 양돈에 국한해보자. 우리나라의 양돈농가의 MSY는 평균 13~14두이다. 유럽의 양돈 선진국이 20두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생산성 차이는 엄청나다. 물론 질병 발생에 의한 폐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폐사율을 줄이기 위하여 백신 개발 등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몇 년간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종돈도 바꾸어야 하고 설비도 개선해야 되고 백신도 사용해야 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2012년부터 돈분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 양돈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폐사율 감소와 생산성향상은 이루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돈분 처리, 종돈 개량, 백신개발, 규격돈 출하 및 유통시스템 등을 모두 양돈농가에게만 맡기고, 양돈 선진국과 경쟁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우리 축산농가의 생산성 수준이 축산 선진국보다 낮다면, 축산 선진국보다 한 단계 높은 생산성 향상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 사료회사, 관련단체 및 정부가 제도적인 개선을 위하여 함께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